

“자연과 벗하며 살아요”

극락초, 맑은물과 푸른숲 체험 교육



광주극락초등학교가 푸른 숲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극락초등학교(교장 박사규)는 지난 휴무 토요일을 이용하여 학교장이 인솔하고 담임들의 지도로 5~6학년 전체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횡성에 있는 푸른 숲 학교에서 운영하는 숲 체험 교육을 다녀왔다.

특히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와 학교 경영평가 우수학교, 그리고 환경대상과 아름다운 학교로 뽑혀 받은 상급과 산림청, 또 그린레이저의 도움으로 청태산에 있는 맑은물과 푸른 숲 체험을 휴무 토요일이지만

5~6학년 전체가 다녀옴으로써 푸른 숲과 생동감 있는 환경 교육에 큰 보탬이 되었다.

해마다 전교생이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극락초등학교는 작년도엔 평화통일 후원회의 도움으로 전교생이 철원, 파주, 연천 군부대와 백마고지, 땅굴, 임진강, 한탄강 레프팅을 5박6일간 다녀왔으며 공군 사관학교의 후원으로 전교생이 청주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우리나라 비행기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비행기를 타보는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 현장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은 교실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쉽게 가볼 수 없는 현장체험을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풀이보게 함으로서 도와 주신 기관의 고마움도 알고, 남북 이산의 아픔, 그리고 공군 사관생도들의 능률한 모습과 비행기의 원리와 푸른 숲을 가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도록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그린렌이저 대원인 5학년 김00 학생은 “우리나라의 숲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고 잠을 잔 통나무 집이 사진에서 본 스위스 집을 같이 이런 곳에서 계속 살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꼭 오고 싶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학교는 알찬 현장 체험 학습을 아동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연재] 반려견(애완견) 길들이기

애완견 발톱 손질부터

1. 그루밍(Grooming)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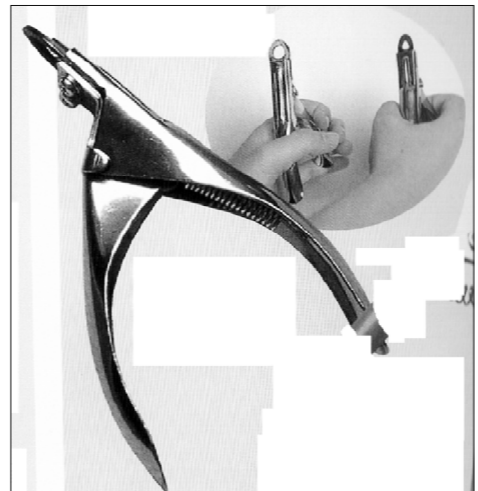
18세기 때부터 프랑스 상류 계급의 부인들 사이에서 운송수단의 목적도 있었지만 주로 부를 과시하기 위해 반려견에게 향수를 뿌리고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만들어서 견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과 운송수단에 활용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코트를 제거하면서 반려견의 미용이 시작되었다.

이 미용을 현재에는 그루밍(Grooming)이라 불리운다

그루밍이란 모든 견의 건강 유지를 위해 피모의 전반적인 손질을 말하고 목적은 견의 신체를 항상 청결하게 하여 견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애견미용사들의 전문 명칭은 그루머(Groomer)라고 한다.

2. 반려견 발톱 자르기(Nail Cutting)

우선 미용을 쉽게 하려면 핏맥이 무렵부터 조금씩 훈련하는 것이 좋다.



길로틴형



플라이형

간단한 것부터 조금씩 익숙하게 하여 반려견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고 올바른 도구 사용법을 숙지하여 미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반려견의 몸에 무리 없는 보정을 하도록 한다.

① 발톱 자르기에 사용되는 도구에는 길로틴형(단두대형), 플라이형(가위형)의 두가지가 있다. 발톱 자르는 도구는 네일커터(Nail Cutter)라고 한다.

길로틴형은 날을 자신쪽으로 향하게 하고 반대로 잡게 되면 날 안으로 발톱이 깊이 들어가게 되어 발톱을 너무 바짝 깎게 된다. 발톱을 구멍 속에 넣어 발톱의 아래쪽에 날을 대어 깎아 준다.

주로 길로틴형은 대형견에게 사용되며 플라이형보단 절단면이 깨끗하게 깎이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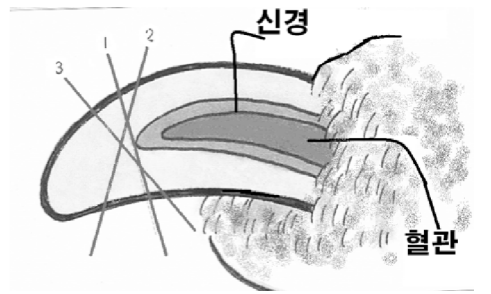
플라이형은 소형견에게 주로 사용되며 그루머들이 잡기 편하여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일커터이다. 발톱을 깎을때 많이 예민한 견들이나 길로틴형의 구멍속에 들어가지 않는 두꺼운 발톱을 깎을때 사용한다.

② 발톱을 깎을때는 갑작스레 깎지 말고 긴장을 풀어 준 다음 깎도록 한다.

견이 무서워서 날뜰게 되면 네일커터에 깊게 깎일 수가 있어 안전 사고가 우려 된다. 우선 개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턱 아래에 손을 대어 냄새를 맡게 하면 개가 안심되어 다루기 쉬워진다. 난동이 심한 견일수록 강하게 압박하면 공포감을 느껴 사람을 물수 있는 경우도 생기므로 조심한다.

③ 발톱을 깎을때는 발끝을 잡고 가볍게 눌러 발톱이 잘 보이도록 한다. 빛에 비추어 분홍색의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흰 부분만 깎아준다. 한꺼번에 많이 깎으려고 하지 말고 혈관 부분보다 조금 앞까지 깎아준다.

④ 흰 발톱일 경우에는 분홍색 부분이 혈관이라 흰 부분만 깎아주면 되지만 검은 발톱일 경우에는 혈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면을 보면서 깎아주도록 한다. 네일커터로 조금씩 깎다보면 단면이 매끈한 감촉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혈관과 가깝다는 것이고 또는 조금씩 깎다가 단면에 검은색 점이 보이면 혈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므로 더 이상 깎게 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⑤ 발톱을 깎을때 익숙지 않거나 견이 발버둥 치게 되면 실수로 혈관까지 자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혈관을 자르게 되면 통증을 느끼고 출혈이 발생한다.

이럴때는 굳이 들어 가지 않도록 바로 지혈을 하는데, 깨끗한 솜으로 상처가 있는 부분을 꼭 눌러준다. 그래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시판되는 애견용 지혈제가 있다. 그 지혈제 가루를 손에 묻혀 상처에 발라준다. 그리고 피가 완전히 지혈 될 때까지 견의 다리를 잡고 있어야 하고 지혈이 다 되었는지 꼭 확인한다.

발톱을 깎아야 하는 이유 : 실외운동(산책)을 자주 하는 견들은 발톱이 자연스레 닳아져서 깎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견들은 발톱이 잘 닳아지지 않아 사람의 손으로 깎아줘야만 한다. 이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의 발바닥(패드)에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며느리발톱이 그렇다. 또한 발톱이 지면보다 길게 되면 견이 걸을 때 마다 보행에 거슬러 잘 걷지 않으려 하고 발톱이 어느 부분에 걸려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눈이 돌출된 견(쉬츠, 불독, 패키니즈 등)이나 사람에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발톱의 자른 면을 고르게 닳아 주도록 한다. 이때 File(췌)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김보연
서경대학 애견동물과 교수



영화소식

박물관이 살아있다 2

Night at the Museum: Battle of the Smithsonian

개봉 2009-06-04
감독 손 레비
출연 벤 스틸러 (래리 데일리 역), 에이미 아담스 (아멜리아 역), 오웬 윌슨 (제레다 야 역), 로빈 윌리엄스 (루즈벨트 대통령 역), 빌 하더 (조지 암스트롱 쿠퍼 역)

깜짝 놀랄 밤의 세계를 경험한 야간 경비원 래리. 전시물은 물론 아크멘라의 석판마져 워싱턴의 스미소니언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워싱턴으로 향한다.

역시나 어둠이 내린 박물관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며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세계를 만들어 놓는다.

지상 최대의 박물관에서는 오만가지 것들이 다 살아난다!



행복한 만남

bosam.co.kr

“변함없이 지켜온 할머니의 손맛”



특별한 맛으로 고객이 먼저 찾아주신 곳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한결같은 정성을 담은 보쌈의 원조
-원할머니보쌈-
전통의 맛과 비결을 직접 느껴 보십시오.